

보도시점 2023. 12. 4.(월) 14:00 배포 2023. 12. 4.(월) 13:00

「아세안+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」 참석

- 역내 금융안정 및 금융협력 주요 쟁점(이슈) 논의

12.6일(수)~7일(목) 일본 카나자와에서 「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」와 「아세안+3(한·중·일)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(ASEAN+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' Meeting)*」가 개최된다.

* 한중일 회의 의장국: 한국 / 아세안+3 회의 공동의장국: 일본, 인도네시아

※ 아세안 10개국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
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·한국은행의 실무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.

이번 회의는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,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(CMIM*) 등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쟁점(이슈)을 논의할 예정이다.

*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: ASEAN+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(총 2,400억불 규모, 우리나라 분담금 384억불(분담비율 16%))

우리 대표단은 '24년 아세안+3 회의 의장국(한국·라오스 공동) 수임을 대비하여 역내외 경제동향 및 정책대응,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발전 방향 등 역내 금융 안정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며, 내년 의장국 수임을 위한 준비상황도 공유할 예정이다.

또한, 12.5일(화) 일본 카나자와에서 「제2차 아세안+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(2nd ASEAN+3 Financial Cooperation and Financial Stability Forum)」에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이 분과(세션)1 토론자(패널)로 참석하여 역내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과 도전 요인*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.

* Session1: Macro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: Disruptors and Stabilizers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	책임자	과 장	범진완 (044-215-48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재원 (044-215-4831)